2026. 1. 26

소비재/플랫폼 Weekly

K-Beauty 유통 최강자 등판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꼭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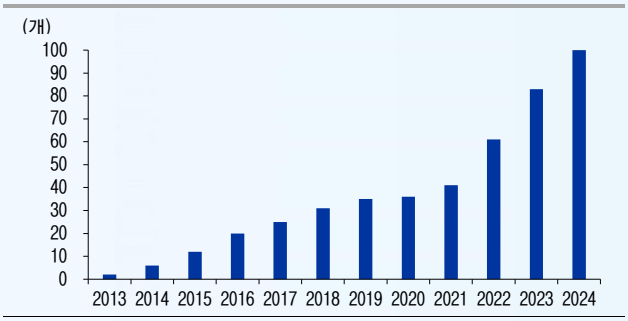
- ✓ 올리브영-세포라 파트너십: 올리브영이 직접 선별한 K뷰티 존이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 조성 예정
- ✓ 세포라 입점을 위해 올리브영 내 성과가 1차 검증 지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 ✓ 브랜드는 단순 매출 확대보다 신제품 출시 역량과 트렌드 대응 속도를 더욱 요구 받게 될 것으로 전망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LVMH 3Q25 사업 부문별 Organic 매출 성장률

자료: LVM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연매출 100 억원 브랜드 수



자료: CJ올리브영, LS증권 리서치센터

올리브영 X 세포라 = 강자들의 만남

올리브영-세포라가 파트너십을 맺으며 올리브영이 직접 선별한 K뷰티 존이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 조성될 예정. 이는 세포라가 K-뷰티를 개별 브랜드 단위가 아닌 큐레이션 단위로 흡수하는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 올해 하반기 미국·캐나다 650개, 동남아 48개 매장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며, 브랜드 발굴 비용과 트렌드 주기 단축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하는 구조. 과거 1세대 K-뷰티를 보완재로 활용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로컬 강자의 선별 역량을 외주화하는 선택으로 판단. 경쟁사 얼타의 K-뷰티 독점 확대에 대응하는 성격도 강하며, LVMH Selective Retailing 내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세포라의 성장 전략상 핵심 축으로 평가

올리브영 국내 성과 ≒ 글로벌 레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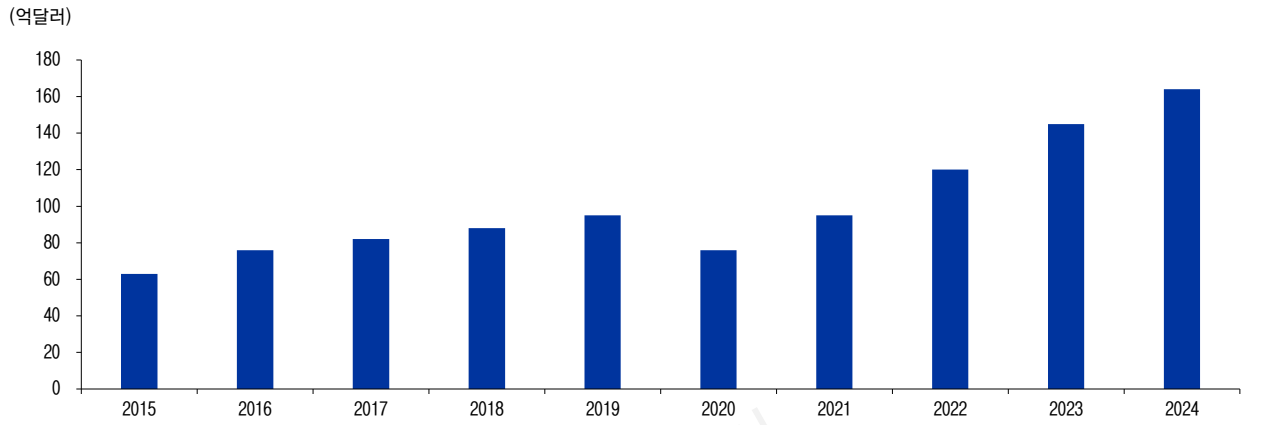
금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올리브영의 국내 플랫폼 내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 협업 구조상 세포라 입점을 위해 올리브영 내 성과가 1차 검증 지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 기존 유통사/에이전트 중심의 해외 진출 방식 외에 올리브영 내 성과를 글로벌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경로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한국 내 인디 브랜드 경쟁은 점진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브랜드는 단순 매출 확대보다 신제품 출시 역량과 트렌드 대응 속도를 더욱 요구받게 될 것으로 판단. 특히 올리브영이 2026년 상반기 LA 단독 매장 오픈을 앞둔 가운데, 글로벌 직진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해외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K-Beauty 유통을 넘어 글로벌 뷰티 트렌드 인큐베이터로의 포지셔닝 가능성도 유효하다고 전망

K-Beauty 유통 최강자 등판

올리브영 X 세포라 = 강자들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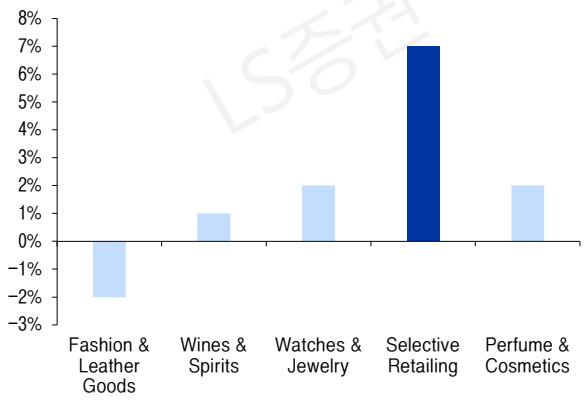
올리브영과 세포라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올리브영이 직접 선별한 K뷰티 존이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세포라의 미국/캐나다 650개 매장, 동남아 48개 매장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중동, 영국, 호주까지 확대되는 구조로, 이번 협업은 세포라 입장에서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세포라는 과거 닥터자르트 같은 1세대 K-Beauty 제품들을 보완재로 활용해왔는데, 금번 협업으로 로컬 강자의 큐레이션을 통째로 흡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올리브영을 통해 신규 브랜드 수혈 파이프라인을 외주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경쟁사 얼타 또한 K-뷰티 브랜드 독점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세포라는 브랜드 발굴에 대한 비용과 트렌드 주기의 단축 리스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 현재 LVMH의 Selective Retailing 부문에서 세포라 비중은 약 90%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5년 3분기 기준 전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유기적 매출 성장률(YoY +7%)을 기록했다.

그림1 **세포라 매출액 추이**



자료: LVMH, LSA Estimates,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LVMH 3Q25 사업 부문별 Organic 매출 성장률**



자료: LVM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얼타뷰티: 랜딩인터내셔널의 K-Beauty 셀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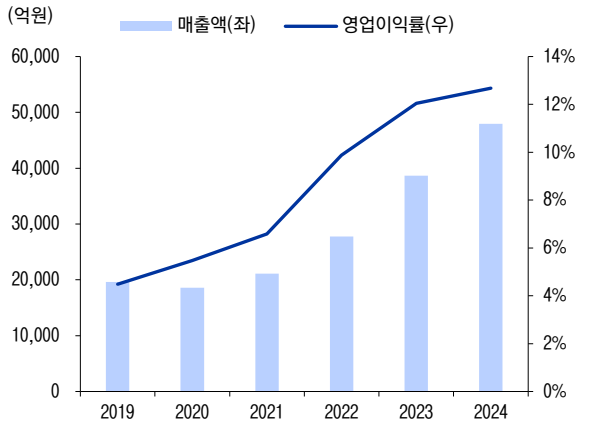
자료: Ulta Beauty, LS증권 리서치센터

올리브영 국내 성과 ≒ 글로벌 레퍼런스, 본격 시작 전망

올리브영은 한국에서의 꾸준한 입지 강화가 예상된다. 협업 구조에서는 세포라 입점을 위해 올리브영 내 성과가 사실상 1차 검증 지표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유통사나 에이전트를 통한 입점 및 세포라 MD를 통한 입점 외에, 올리브영 성과를 글로벌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전략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인디 브랜드 경쟁은 더더욱 심화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고, 브랜드는 단순 매출 확대보다 지속적 신제품 출시 역량과 트렌드 대응 속도를 요구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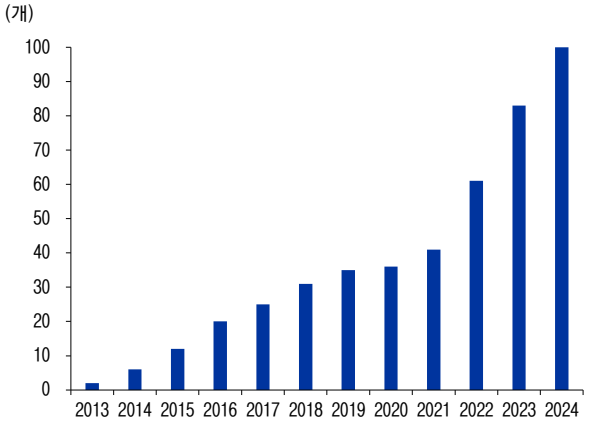
올리브영은 미국 직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2026년 상반기 중 LA 단독 매장), 파트너십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해외 확장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K-Beauty 유통 채널을 넘어 글로벌 뷰티 트렌드 인큐베이터로 포지셔닝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파트너십은 K-Beauty 브랜드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림4 **올리브영 실적 추이**



자료: CJ올리브영,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연매출 100 억원 브랜드 수**



자료: CJ올리브영,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4	2025E	2026E	2024	2025E	2026E
코스피	4,990	41,255,551	3.1	21.2	29.8	56.7	98.4	18.4	-	-	-	-	-	-
코스피 대형주	5,261	36,506,497	3.1	23.8	33.0	65.7	109.5	20.2	-	-	-	-	-	-
코스닥	994	5,440,139	4.1	8.1	14.0	22.2	37.3	7.4	-	-	-	-	-	-
코스피 중형주	4,062	3,515,833	3.8	6.5	10.5	13.9	46.4	9.1	-	-	-	-	-	-
코스피 소형주	2,583	1,010,253	2.1	1.0	4.3	0.9	21.3	2.6	-	-	-	-	-	-
유통														
코웨이	77,400	55,658	1.7	-12.6	-16.1	-29.0	-2.5	-10.9	9.5	9.1	7.7	1.8	1.5	1.3
호텔신라	46,300	18,172	-0.4	2.9	-6.0	-11.6	18.9	3.8	-318.0	-13.0	23.8	3.0	1.6	1.5
BGF 리테일	117,200	20,257	1.7	6.4	11.8	-1.7	13.9	11.8	10.6	10.8	10.2	1.7	1.6	1.4
GS 리테일	21,100	17,641	0.0	-1.9	22.3	25.1	35.3	5.0	36.9	11.9	9.6	0.4	0.5	0.5
롯데쇼핑	78,900	22,320	5.3	5.6	16.9	5.8	47.5	8.8	38.8	28.3	8.9	0.2	0.2	0.1
신세계	290,000	27,971	1.6	15.5	62.2	57.8	121.7	17.4	13.6	25.6	11.3	0.6	0.6	0.6
이마트	87,200	24,064	4.4	2.2	18.2	-5.5	37.5	7.3	-254.0	7.9	10.4	0.2	0.2	0.2
현대백화점	91,000	20,592	-5.3	0.7	11.1	20.5	87.1	2.7	221.0	9.1	7.9	0.5	0.4	0.4
SK 네트웍스	4,695	10,389	5.3	3.2	1.5	1.3	12.3	3.9	9.1	19.2	16.0	0.4	0.5	0.5
인터넷														
NAVER	266,000	417,228	8.4	12.2	9.7	14.9	30.1	9.7	24.2	19.5	18.6	1.6	1.4	1.3
카카오	61,000	269,922	6.5	3.4	3.4	10.9	70.6	1.5	85.5	50.0	40.2	2.6	2.5	2.4
게임														
크래프톤	238,500	113,058	1.9	-4.6	-16.3	-31.5	-29.3	-3.1	11.4	12.7	10.8	1.7	1.4	1.2
넷마블	51,800	44,524	3.4	5.5	-7.2	-14.0	17.7	7.4	26.7	14.2	13.4	0.8	0.8	0.7
엔씨소프트	227,000	48,905	-4.0	13.6	11.6	14.2	31.2	12.7	149.3	14.2	14.8	1.4	1.3	1.2
펄어비스	43,950	28,237	11.7	21.6	25.0	17.8	57.3	17.5	478.6	-220.8	17.1	3.7	3.4	2.8
카카오게임즈	15,000	13,468	4.9	-2.0	-4.3	-12.6	-6.5	0.7	-66.1	-19.9	50.3	0.9	1.0	1.0
더블유게임즈	52,500	11,285	2.9	-4.6	5.0	-8.2	3.8	-2.1	6.7	7.7	6.3	1.0	0.8	0.7
NHN	31,300	10,252	2.6	4.9	19.7	9.1	72.6	7.8	-12.8	32.4	12.7	0.7	0.7	0.6
웹젠	12,670	4,384	4.3	-7.2	3.4	-14.5	-8.4	-1.8	7.7	15.4	9.1	0.6	0.6	0.5
컴투스	33,350	4,248	8.1	13.1	-4.9	-16.3	-25.9	14.8	41.2	118.0	21.2	0.4	0.4	0.4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33,300	77,971	9.8	10.2	11.6	-1.0	7.0	11.6	13.3	33.6	25.9	1.7	1.7	1.6
LG 생활건강	274,000	41,929	3.6	4.2	-3.4	-17.4	-8.1	6.0	17.2	37.9	26.1	0.8	0.8	0.8
실리콘투	49,300	30,158	17.2	24.3	8.0	-3.3	55.8	27.6	24.7	17.5	13.7	11.7	7.2	4.7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8,750	22,844	11.2	5.3	14.1	-10.4	21.1	7.1	9.7	17.6	17.2	0.7	0.8	0.7
한국콜마	66,700	15,745	4.4	7.4	-12.6	-30.5	9.7	7.4	21.3	15.0	11.6	2.2	1.8	1.6
코스맥스	193,800	21,995	3.5	15.3	-5.7	-19.8	16.0	18.9	23.8	31.6	16.6	4.9	4.4	3.6
브이티	17,550	6,132	8.6	-2.5	-32.0	-51.2	-49.0	0.2	7.5	9.4	8.8	3.1	2.2	1.7
코스메카코리아	81,100	8,661	21.6	18.7	16.0	22.0	52.2	21.8	20.9	17.8	13.8	4.1	3.3	2.7
씨앤씨인터내셔널	32,400	4,416	6.6	-0.5	-18.3	-26.3	-13.0	9.3	10.3	19.6	13.8	1.6	1.9	1.7
클리오	13,140	2,375	1.5	-1.1	-11.8	-16.9	-26.9	0.8	n/a	17.2	13.6	n/a	n/a	n/a
한국화장품제조	49,200	2,230	3.0	-1.0	-8.2	-24.2	5.8	0.6	n/a	n/a	n/a	n/a	n/a	n/a
아이패밀리에스씨	15,080	2,612	1.7	8.4	-20.0	-10.3	-38.1	10.5	8.3	10.9	8.4	2.6	2.3	1.8
마녀공장	14,270	2,338	2.1	2.5	-11.3	-21.6	-17.2	4.2	n/a	n/a	n/a	n/a	n/a	n/a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1.23 종가 기준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8.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11.3%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1. 1 ~ 202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